

우주산업클러스터 3조4500억...신속한 지원만이 답이다



미래산업 메카 떠오르는 전남

<5>전남도 추진사업 정부지원 절실

전남도가 2019년 11월에 수립한 '전남 차세대 미래비행체 산업 발전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2년간 추진할 국가중합비행성능시험장 등 16개 사업이 망라돼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국비 2681억원을 포함해 모두 5130억원이다. 1단계(2015~2021) 4개 사업 1087억원의 추진율은 85%에 이르지만, 2단계(2020~2025) 6개 사업 853억원의 추진율은 20%, 3단계(2021~2030) 6개 사업 3615억원의 추진율은 5%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비가 지원돼 사업이 예정대로 진척된다면 관련 기업은 54개에서 260개, 일자리는 170명에서 3400

국가중합비행시험장 5000억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3조 필요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도 시급

명, 매출은 4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고흥에 오는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가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남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에도 국비 3조2850억원을 포함해 3조4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에 2조9000억원, 우주센터 시설물 확충에 2600억원, 발사체 기술개발 및 연구센터 구축에 1000억원, 우주과학복합테마단지 조성에 1000억원 등이 투입돼야 한다.

나주권, 광양반권, 전남서부권을 각각 이차전지 완제품, 응용제품 생산 및 기술혁신 거점, 이차전지 소재 부품 공급기지, 이차전지 사업화 지구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도 국비의 신속한 지원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전기동력 추진체 배터리팩 실증센터 구축(국비 300억원), EV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450억원), 저탄소·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 기술개발(250억원), 에너지저장 공정축매 재자원화 기술개발(297억원), 탄소중립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100억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 ESS 구축사업(3100억원) 등이 향후 과제다. 모두 4497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이차전지와 관련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속속 잇따르고 있다. (주)포스코케미칼이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제조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3월까지 9400억원을, 포스코리튬솔루션(주)가 지난 5월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3년 6월까지 7600

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주)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 메탈은 오는 2026년까지 1200억원을, (주)LCM 에너지솔루션은 2023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각각 유기금속 추출 공장,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중인 전남도는 배터티당성 조사중인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사업'의 유치를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산업부-해수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7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이 2540억원으로 조선산업 분야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첨단바이오·백신 산업의 세계 도약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도 현안이다.

전남도는 첨단단지가 지정될 경우 1조원 규모의 국가 의료 연구개발 지원센터들이 들어서게 돼 국가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벤처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화순백신산업특

구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한 박셀바이오와 같은 기업이 곳곳에서 싹을 틔울 것이라는 의미다. 박셀바이오는 세포치료제 기술 개발로 코스닥에 상장, 시가총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남-충북-대구·경북을 잇는 비수도권 첨단의료 삼각축이 완성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고용유발효과 7만1000여명, 건강보험 재정지출 9646억원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첨단세라믹의 경우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종합 지원센터가 연평균 70여개 세라믹기업에 약 2000여 건을 지원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첨단세라믹 소재 신규 사업화로 세라믹특화단지 내 7개 업체가 528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지어 일자리 183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수입의존도 높은 첨단 세라믹 핵심소재 특수알루미나, 기능성코팅분말 등 5종의 국산화 및 사업화에 성공하고, 질화규소, 히터코팅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자산업용 세라믹 소재 5종은 국산화가 진행중이다. <글>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치경찰 자율방범연합회 출범 이용성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자치경찰 자율방범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유공방법대원에 표창을 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내년 현안사업 국고 확보 전방위 대응

문금주 부지사, 기재부 2차관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15건 건의

전남도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국도2호선 연결도로,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의 예산 지원 및 증액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지난 22일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서울종합청사에서 기재부 안도길 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 꼭 추진해야 할 국고 현안사업 15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국도2호선 연결도로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진입도로 확장 ▲영산대교 성능개선 사업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중액)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중액) ▲국립남도음식산업진흥원 설립 ▲영광 염산지구 농촌융복합 이용체계 재편사업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중액)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중액)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남해안 명품테마섬 조성사업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문 부지사는 "정부예산안에 전남의 불우 이코노미 성장에 필요한 다수 사업을 기재부가 적극 반영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신규 국가계획에 반영된 SOC, 추가 사업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꼭 반영되도록 기재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사항과 예타 등 사전예정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관심 갖고 국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심사 전인 10월과 11월을 국고 확보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금주 부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잇따라 기재부 예산실과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 이 지난 21일 종료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중앙부처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국장을 비롯해 각 정당 지도부,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시철도2호선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강화

광주시·경찰·도로교통공단·시공사 출·퇴근 체증 완화 등 대책 재정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 곳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재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21일 시 교통정책연구실,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서), 도로교통공단,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처리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시민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필요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상습정체구간 신호수 추가 배치, 공사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대 추가 차로 통제 금지, 모든 공사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공사구간에는 모범 신호수와 교통경찰을 추가 배치해 교통 흐름을 돕기로 했다.

또 자치구 협조를 얻어 공사구간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공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로를 추가 점용해 작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차선이 변경되면서 희미하게 남아 있는 차선 표시가 운전자에게 혼선을 준다든 지적에 따라 변경된 차선이나 유도선은 가급적 노면 적색 후 재도색하도록 하고, 서구 월드컵사거리 내 시선유도봉과 안전지대를 정비하는 한편 쉼터 유도선과 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남구 백운고가 철거로 인해 임시 우회도로로 운영 중이던 남구 미래아동병원 사거리의 신호체계를 당초대로 복구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신호체계 복구 전 교통안내시설물과 사전 홍보 자료 등을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연장

전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방재산은 시 지역 2억원, 군 지역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1231만원 이하 가구다. 같은 위기 사유에 따른 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원, 군 지역 24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 15일 긴급복지지원 영상회의를 열어 시군 긴급복지 부서장과 함께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제도 홍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독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KDN

상상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전KDN은 에너지 산기자로 전력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에너지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한전KDN이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한전KDN